

자료제공 : 2026. 1. 8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

도시재창조과장

김용배

02-2133-4630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4쪽

세운활성화계획팀장

김선웅

02-2133-4643

서울시, 국가유산청 종묘 촬영허가·공동검증 촉구… 세운4구역 주민도 촉구 집회

- 市, 높이 검증을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허가 요청했으나, 국가유산청 불허
- 4구역 주민 종묘 인근 광장 집회, 촬영 허가 및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 요청
- 市 “시뮬레이션 공동 검증, 시민께 결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”

- ☐ 2025년 11월 18일, 서울시는 ‘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 하늘을 가린다’는 주장에 대해,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의회에서 공개했다.
- ☐ 이후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, 서울시는 2025년 12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실시했다.
- ☐ 실증 결과, 현장에서 확인된 높이와 경관은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- ☐ 서울시는 해당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6년 1월 8일 국가유산청, 서울시, 기자단,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.

- 서울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논란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으나, 국가유산청은 ‘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’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.
- 한편,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,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·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청했다.
 - 주민들은 집회에서 “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”며 “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-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“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“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각 기관의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검증하고,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-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”이라며, “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1

세운4구역 건축물높이 실증작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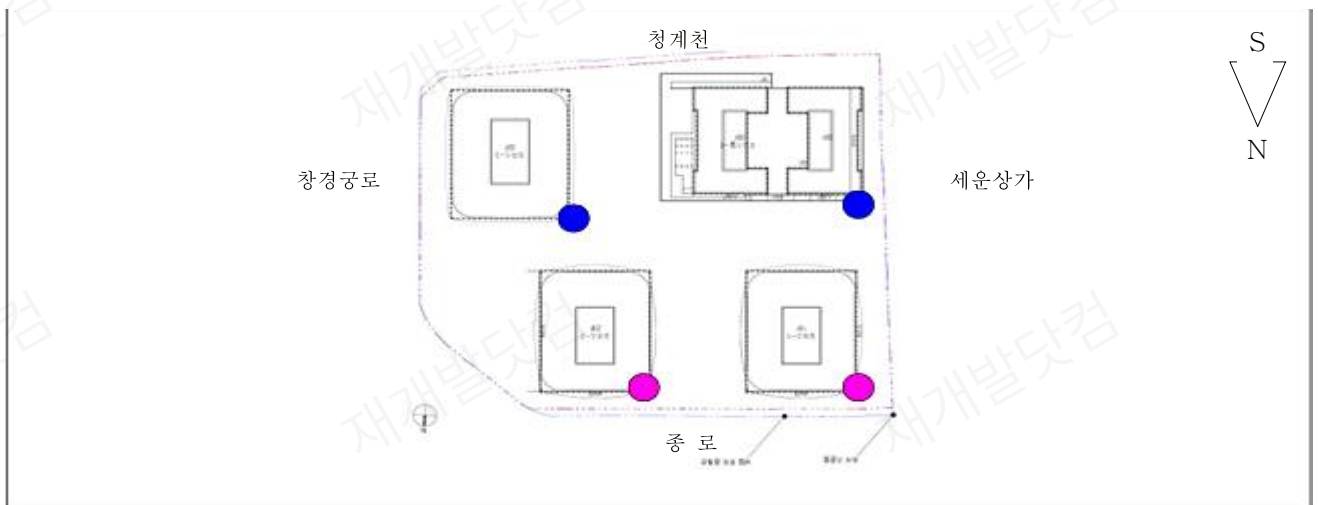
□ 작업개요

○ 작업일시 : 2025.12.21.(일) 7:00~11:50

○ 애드벌룬 설치 위치 : 세운4구역 건축계획(안) 북서측 모서리

- 종로변 2개(94m(94.2), 99m(98.7)), 청계천변 2개(141m(140.9), 142m(141.9))

* 애드벌룬 크기(D3.5m)는 제외한 순수 끈 길이가 건물높이임



□ 촬영개요

○ 촬영위치 : 종묘 정전 상월대 중간지점(계단끝에서 약2.9m)

○ 카메라 : Sony A7R III 12mm 광각줌

